

광주 자원순환지원센터, 운영 정상화 ‘총력’

2026 사업계획 확정...운영 3년 차 맞아 예산 2억2500만원 증액

제로웨이스트 행사·제로플라스틱 실천 프로젝트 등 신규 사업 추진

출범 첫해 예산 ‘0원’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이듬해 구인난까지 겪었던 광주 자원순환지원센터가 올해 운영 3년 차를 맞아 조직 안정화와 사업 확장에 나섰다.

7일 광주 자원순환과에 따르면 시는 최근 ‘2026년 자원순환지원센터 사업계획’을 검토·확정했다.

광주시가 위탁운영하는 센터는 2024년 지정 첫해 사업비를 전혀 확보하지 못해 파행 운영 우려를 낳았고, 지난해 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기간제 근로자 지원자가 없어 채용이 지연되는 등 인력 수급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시는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3500만원 증액한 2억 2500만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연구원(나급) 1명을 신규 채용, 총 3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해 업무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예산안에는 인건비 1억 3235만원과 사업비 7763만 원 등이 포함됐다.

조직 정비와 함께 신규 사업도 대폭 늘어난다.

우선 ‘광주형 제로웨이스트 행사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에 착수한다.

지역 축제나 행사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회용품 줄이기 위해 대체품 기준과 다회용기 대여·회수 시스템 운영 등을 담은 매뉴얼

을 개발하고, 향후 조례 반영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자원순환 관련 산업 실태조사도 처음으로 실시된다. 그동안 파악이 어려웠던 영세 업사이클링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장의 현황을 진단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 모델을 구축해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민 체험형 사업으로는 ‘제로플라스틱 시민 실천 프로젝트’가 신설된다.

‘플라스틱 일기’ 작성을 통해 가정 내 배출 실태를 점검하고 감량 활동을 하는 시민실천단을 운영한다.

기존 호응이 좋았던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은 260회로 확대 운영하며, 학생 중심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신규 콘텐츠도 개발한다.

올해 (재)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의 위탁 운영 기간(17기)이 종료되는 해다.

센터는 지난 3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2년의 시행착오를 딛고 올해는 예산과 인력이 보강된 만큼 광주형 자원순환 모델을 확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강진만 횡단교량 건설사업 추진

전남도는 7일 강진아트홀에서 강진군과 ‘강진만 횡단교량 건설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한 강진원 강진군수, 차영수 도의회 의원등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 제공〉

고흥 백세인 장수 비결은 ‘자신감·활동성’

10명 중 6명 “건강하다” 자신...광주·화순보다 활동 많아

노인인구비율 47%인 고흥의 95세 이상 어르신의 장수비결은 건강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활발한 신체·사회적 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남대 노화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8월 11일부터 2주간 고흥 거주 95세 이상 어르신(이하 백세인) 42명을 대상으로 신체·사회·정신적 건강과 식품영양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주관적 건강 좋음’ 비율이 62%, ‘마을 밖까지 활동’ 51%, ‘정기적 모임’ 44%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이들 결과는 지난 2023·2024년 노화과학연구소가 시행했던 대도시 광주와 도시·농촌 혼합도시 화순의 백세인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여 전형적인 농촌인 고흥 백세인만의 특징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평소 스스로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주관적 건강’에 대해 35.7%가 ‘매우 좋음’, 26.2%가 ‘좋음’으로 답해 총 응답자의 61.9%가 자신의 건강에 대해 좋다

고 자신했다. 이는 화순 54.2%와 광주 48.5%보다 훨씬 높아 평소 건강관리와 그에 대한 자신감의 중요성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또 혼자 활동할 수 있는 범위조사에서는 고흥 백세인의 51.3%가 ‘마을 안 멀리 또는 마을 밖’까지로 답해 광주(27.3%)·화순(48.2%)보다 활동 범위가 넓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활동범위가 ‘방안 또는 집과 이웃집’으로 좁은 경우는 광주(72.6%), 화순(51.9%), 고흥(48.6%) 순이었다.

이같이 혼자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6점 척도로 환산해 보면 고흥(3.46)이 화순(3.30)·광주(2.70)보다 높았다.

사회적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정기적 모임에 있어서도 고흥 백세인의 43.8%가 문중·친구·마을 모임과 복지시설 이용 등의 정기적 모임을 갖고 있어, 광주(32.8%)와 화순(34.0%)보다 큰 차이를 보였다.

백세인 건강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수면 시간에

서 고흥은 8.07시간으로 8시간 이상을 보였으나, 화순(9.1시간)·광주(8.54시간)보다는 적었으며, 수면의 질(5점 척도)에 있어서도 3.09로 화순(3.24)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거주유형으로는 고흥 백세인의 63.4%가 홀로 거주하고 있어, 화순(52%)·광주(36%)보다 독거 비율이 높았다.

만성질환 부문에서는 고혈압이 62%(26명)로 가장 많았으며, 골관절염(16.7%), 당뇨병(11.9%), 골절(11.9%) 순이었으며,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도 42명 중 8명으로 19%에 달했다.

또 식품습관 부문에 있어 고흥 백세인의 33%가 영양 보충제를 섭취하고 있으며, 40%가 식사할 때 전혀 불편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69%는 섭취량이 매우 일정하고, 식사시간이 규칙적인 경우도 35%에 달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제17차 건강백세포럼에서 발표됐으며, 전남대 생활복지학과 이정화 교수가 ‘고흥군 백세인의 가족, 돌봄, 그리고 사회적 관계’, 화순전남대병원 이루지 교수가 ‘전남도 고흥군 백세인조사 현황과 특성’, 전남대 식품영양과 학부 박용주 교수가 ‘고흥군 백세인의 영양과 식품관’으로 각각 발표했다. /서승원 기자 swseo@

“100만원 저축하면 100만원 더 드려요”

광주시, ‘청년13통장’ 참여자 모집

광주지역 청년 노동자가 매달 10만원씩 10개월간 저축하면 광주시가 동일 금액을 매칭해 두 배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청년13(일+살)통장’ 사업이 올해도 본격화된다.

광주시는 8일부터 18일까지 ‘제11기 청년13통장’ 참여자 620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1)하는 청년에게 더 나은 삶(3)을 선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소액의 저축으로 자산 형성을 돕는 광주의 대표적인 청년 금융 복지 정책이다.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10개월 동안 총 100만원을 적립하면, 시가 같은 금액인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만기 시에는 본인 저축액의 두 배인 200만원과 약정 이자를 함께 수령할 수 있다. 지난해 10기 참여자 598명이 만기 해지해 총 11억9600만원의 지

원금을 받았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부터 39세(1986년 1월 2일~2007년 1월 1일 출생) 근로 청년이다. 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소득 기준은 세전 월 92만 556원 이상 307만 7086원 이하여야 한다. 이는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수준을 반영한 것이다.

희망자는 ‘광주청년통합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발은 서류 심사를 통과한 적격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방식을 통해 이뤄진다.

권운숙 광주시 청년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경제적 자립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해양쓰레기 수거 효율 높인다

전남도, 150t급 정화선 건조 착수

전남도가 해양환경정화선 건조에 착수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해양환경정화선 신규 건조 설계비로 국비 4억원을 확보했다. 해양환경정화선은 인양틀과 크레인 등을 갖춘 150t급 수거선으로, 건조까지는 75억원이 투입된다. 사업기간

은 2028년까지로,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보유한만큼, 전국에서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가장 많다. 중국 등 외국에서 유입되는 쓰레기와 오랜 기간 바다에 침적된 폐기물이 많아 정화선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현재 전남도가 운영 중인 정화선은 건조 28년

지난 노후 선박으로, 대형, 침체 해양쓰레기 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전남도는 정화선 설계 단계부터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해 연안과 도서지역 해양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 보전과 어장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신규 정화선 건조로 현장 대응 역량과 수거 효율이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화선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전남의 해양환경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74

광주일보 74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